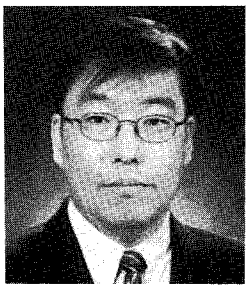
겨울철 육계 육성중 균일도 향상방안

– 밀사 피하고, 깔짚의 습도 20~25% 유지되도록 –



연 제 영
(주)CKF 개발팀장

주요 사료 단백질 공급원인 대두박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가운데 육계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입추부터 출하까지 더욱 관심을 가지는 방법만이 이익을 창출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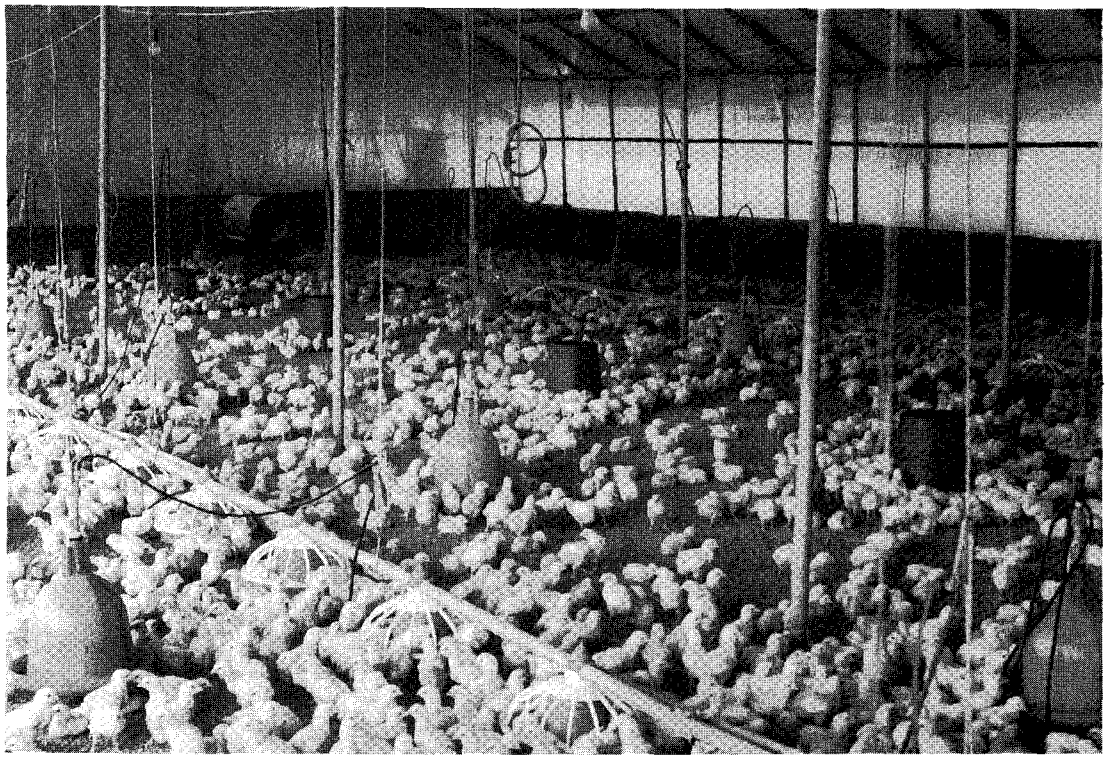
겨울철은 외기온도가 낮고, 습도가 건조하므로 육계의 발육이 다른 계절에 비해 떨어지고 단위증체당 사료섭취량이 증가하며 계사내 암모니아가스가 증가하며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다발하여 육계사육농가의 사양관리상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특히 국내사정상 비닐하우스 간이계사나 개방계사에서 육계사육시 사양관리상의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인 피해는 예상 밖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을 잘 유지해 주고 사양관리를 잘하는 것이 계군의 균일도를 향상시켜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1. 병아리 입추

규모가 큰 육계농장의 경우 종계가 다른 계군의 병아리를 입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대부분 사육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노계군보다 초산계군의 병아리가 가볍기 마련이다. 1~2g 정도의 종란의 무게 차는 육계농가에 도착 후 3일령



에 10~30g의 병아리 무게차이도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령이 높아갈수록 계속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어느 계절이나 계군이 다른 병아리는 반드시 구별하여 사육하는 것이 계군균일도를 향상시키는 기본이 된다.

2. 급수와 환기, 습도

입추는 부화후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아리 체중의 60~70% 정도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 정도의 체수분을 잃으면 탈수현상과 장애가 발생하고 20% 수준의 체수분을 상실하면 폐사에 이르게 되므로 입추즉시 물을 공급하여 탈수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계사내에서 병아리가 급수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24 정도의 따뜻한 물에 전해물질 또는 포도당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입추후 12시간동안 급수량을 늘려주면 좋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물의 량이 적거나 급수기의 수가 적어서 물이 충분하지 못하면 증체가 저하되고 균일도 역시 떨어지게 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첫모이는 많은 농가에서 24시간 이후에 주는 것이 좋다고 믿어왔으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초 급수후 3시간 정도에 첫모이를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경온도에 있어서 병아리는 체온조절기능이 미약하므로 인위적으로 온도를 가열해 주어야 하며 계사내 병아리 등높이의 온도가 3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동시에 중요한 것은

온도변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육 전 기간에 걸쳐 환기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항목이다.

유해가스배출과 공기교환율은 사육기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게 되며,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특히, 겨울철에는 샛바람을 막아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기가 불량하면 콕시듐, 장염, 호흡기성 질병의 발생원인이 되며 발육지연, 사료효율 저하 및 폐사율이 증가된다.

육추기간에 습도가 부족하면 탈수증이 생기고 우모발생이 불량해지며 식욕감퇴 및 성장부진, 폐사 증세가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공기중 습도가 부족하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공급하므로 건조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사바닥에 물을 뿌려주거나 난로위에 물을 올려놓아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육추초기에는 70%, 후기에는 60% 정도가 적당하다.

3. 사육밀도

밀사된 병아리들은 서로 모이려는 습성을 갖고 있으며 일부농가의 경우, 수익 최대화를 위해 정상보다 많은 병아리를 입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급수기와 사료급이기의 점유경쟁 등으로 인해서 약추들은 밀사 및 스트레스로 인해 계군 균일도가 점점 떨이지게 되고 폐사율도 높아지게 되며 환경의 악화로 대장균증이나 호흡기 질병의 발생도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밀사를 하게 되면 정상 계군에 비해 평균 출하체중에 0.2kg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

겨울철에는 과다한 사육밀도가 아닌 경우에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 계군밀집이 발생하는데 이는 환기부족으로 인한 바닥의 과습, 샛바람으로 인한 밀집, 계사의 이슬 맺힘에 따른 과습, 온도저하에 의한 밀집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관심 있는 사양관리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4. 깔짚관리

사양관리에서 깔짚은 입추에서 출하까지 덩어리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깔짚의 수분함량은 20~25%수준이 가장 적당하며 깔짚이 덩어리지거나 수분함량이 50%를 넘어서면 다리나 흉부에 딱지, 수종 등이 발생하게 되고 균일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분함량이 20% 이하가 되면 먼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깔짚을 교체하지 않고 보충만 하면 상태는 더욱 악화가 된다.

깔짚은 흡습성이 우수하고 청결하고 분진이 적으며 구입이 용이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생물학적, 화학적인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깔짚보관 창고에 쥐가 있다면 마이코플라즈마, 살모넬라 등의 오염을 생각할 수 있다.

5. 계사내 공기오염

겨울철 계사내 온도유지를 위하여 적정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사내 공기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먼지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암모니아에 의한 피해로는 호흡기 질병 증가, 각막과 결막에 염증, 성장률과 사료효율 저하, 육질저하 등이 대표적인 증세로 나타난다.

암모니아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계분내 수분을 줄이는 방법과 계분내 pH를 낮추는 방법, 암모니아를 중화시키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간접적인 스트레스로 성장저하 및 균일도 저하를 초래하고, 일산화탄소는 저산소증, 흉수염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먼지는 양계에선 일반적인 오염물질로 배설물, 깃털, 사료 등에서 발생하며 닭의 습성상 날개짓을 하고 사료를 파헤치기 때문에 타 축종에 비해 먼지 발생량이 많다. 먼지에 의해 호흡기가 손상이 되고, 특히 암모니아가 부착된 먼지입자가 더 많은 피해를 준다.

먼지는 여러 병원균의 매개체역활을 하므로 복합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계사내 먼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이며 이때 물을 미세하게 적절히 분무해주는 것은 먼지입자를 감소시킨다. 다만 깔짚이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육계 사양관리에서도 항상 알고 있고 실행하는 기본적인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금더 세심한 계사 환경 관리를 한다면 균일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 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